

▶ 달러/원 주간 전망

• 명확해진 연준의 강경 시그널... 불편한 환율 레벨과 변동성

서울, 8월29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강도 통화 긴축 발 긴장감 속에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잭슨 홀 컨퍼런스 연설에서 경제적 비용을 치르더라도 물가를 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적정 기간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시사하며 통화 완화 전환에 대한 시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물가를 통제하기 위한 고강도 통화 긴축 신호를 단호하고 명확하게 제시한 연준 의장 발언에 달러는 강세를 재개했다. 이에 역외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1,340원대 초반으로 급등해 전 고점(1,346.6원)에 바짝 다가섰다.

최근 원화가 달러와 위안화에 휘둘리는 만큼 이번 주 역시 변동성에 취약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외환당국이 연일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며 불안심리 확산 차단에 애를 쓰고 있다. 환율이 상승 변동성을 대거 키우며 1,350원대를 위협하자, 당국의 시장 대응도 한층 강경해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로이터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투기적 움직임이 있으면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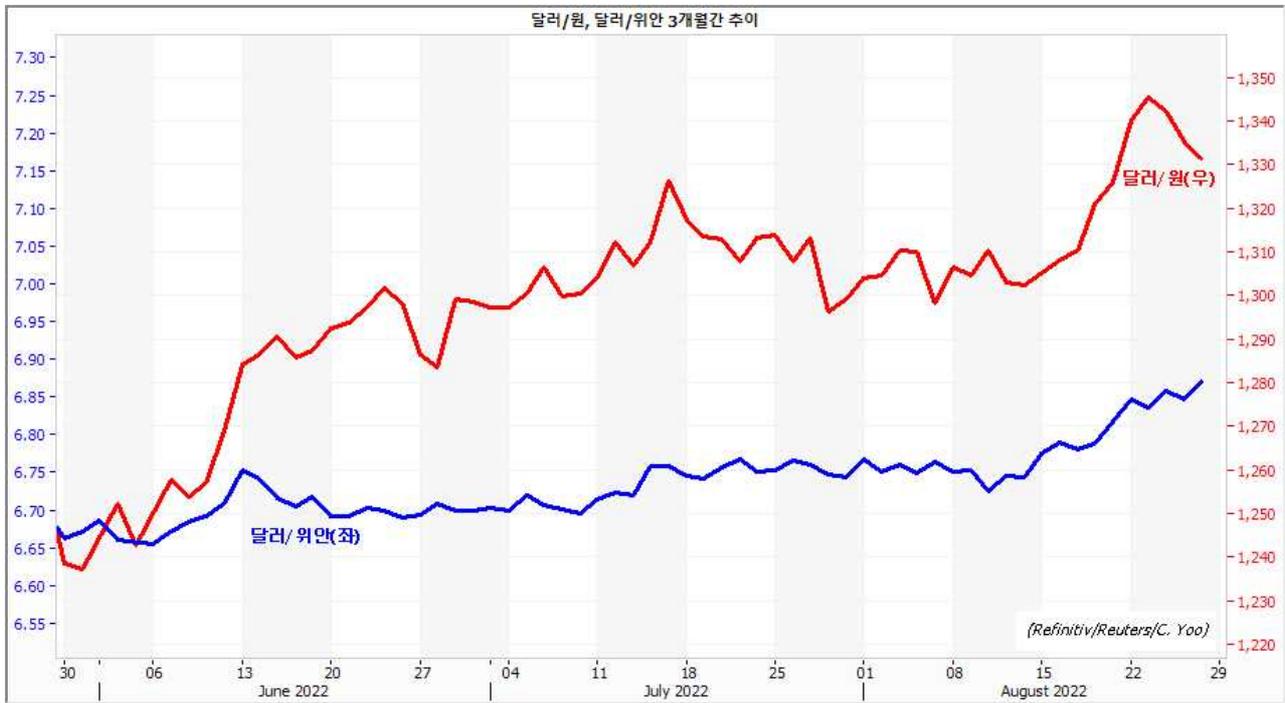
외환당국이 현재 환율 수준과 위기를 연결시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지만, 금융위기를 연상시키는 환율 레벨에 대한 시장 안팎의 불안에 크게 신경을 쓰는 눈치다.

그럼에도 달러와 위안 보폭이 확대된다면 원화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당국 또한 주요국 통화와의 보폭을 맞추는 데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국이 시장 안정을 연일 외치는 상황에서도 환율이 레벨을 계속 높인다면 심리는 더욱 쓸릴 수 있다.

이번 주는 주요국 경제지표 결과 따라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8월 제조업 지표를 비롯해 미국 8월 고용지표 결과가 가장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7월 산업생산과 8월 수출입 동향 및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이 가장 큰 변수겠지만, 그 속에서 당국과 역내외 시장 참가자들 간의 신경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는 한 주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8월29일(월)

- ⊙ 기획재정부: 부총리·2차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10:00)
- ⊙ 금융위원회: 위원장 예결위 종합 정책 질의 참석 (10:00)
- ⊙ 한국은행: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Privacy: A Randomized Survey Experiment(BOK경제연구 2022-13호) (12:00)
- ⊙ 한국은행: 2022년 2/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 (12:00)
- ⊙ 한국은행: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에 대한 번역본 발간 (12:00)

8월30일(화)

- ⊙ 기획재정부: 2023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10:00)
- ⊙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10:00)
- ⊙ 금융감독원: 원장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 (10:20)
-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2022.8 -논고: 수입 물가 상승의 산업별 가격전가 분석: 원자재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12:00)
- ⊙ 한국은행: 2022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2:00)
- ⊙ 기획재정부: 1차관 투자 간담회 (14:00)
- ⊙ 한국은행: 2022년 9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 (배포시)

8월31일(수)

- ⊙ 통계청: 2022년 7월 산업활동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2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09:00)
- ⊙ 기획재정부: '22~'26 재정건전화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발표 (11:3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리스크 대응 TF」4차 회의 개최 (11:30)
- ⊙ 한국은행: 2022년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 ⊙ KDI: KDI 북한경제리뷰(2022. 8) (12:00)
- ⊙ 금융감독원: 2022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소비자단체 간담회 (15:30)

9월1일(목)

- ⊙ 한국은행: 2022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08:00)
-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8월 수출입 동향 (09:00)
- ⊙ 금융위원회: 위원장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10: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2차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10:00)
- ⊙ 한국은행: 2022년 2/4분기중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12:00)
- ⊙ 금융감독원: '22.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12:00)
- ⊙ 통계청: 2022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국회 본회의 (14:00)

9월2일(금)

- ⊙ 통계청: 2022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제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08:30)
- ⊙ 기획재정부: 2022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09: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2차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10:00)
- ⊙ 한국은행: 2022년 2/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8월29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6월		-0.6
8월29일	23:00	미국	델러스연은 제조업 경기지수	8월		-22.60
8월30일	08:30	일본	실업률	7월		2.6%
8월30일	18: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8월		1.14
8월30일	18: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8월		99.0
8월30일	18: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최종치	8월		-24.9
8월30일	22:00	미국	FHFA 주택가격 MM	6월		1.4%
8월30일	22:00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MM	6월		1.3%
8월30일	23: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8월	98.2	95.7
8월31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MM	7월		9.2%
8월31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7월		1.5%
8월31일	10:30	중국	NBS 제조업 PMI	8월		49.0
8월31일	10:30	중국	NBS 서비스업 PMI	8월		53.8
8월31일	14:00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8월		30.2
8월31일	14:00	일본	건축부문 YY	7월		15.5%
8월31일	14:00	일본	주택착공 YY	7월		-2.2%
8월31일	18:00	유로존	CPI NSA	8월		117.14
8월31일	20: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8월26일 주간		270.1
8월31일~ 9월7일	21:15	미국	ADP 전국고용동향	6월	200k	128k
8월31일	22:45	미국	시카고 PMI	8월		52.1
9월1일	08:50	일본	기업설비투자 YY	2분기		3.0%
9월1~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8월		1,323.0B
9월1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최종치	8월		51.0
9월1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치	8월		50.4
9월1일	17:00	유로존	S&P글로벌 제조업 PMI 최종치	8월		49.7
9월1일	18:00	유로존	실업률	7월	6.6%	6.6%
9월1일	20:30	미국	채리저해고건수	8월		25.810k

9월1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8월22일 주간		243k
9월1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최종치	8월		51.3
9월1~6일	23:00	미국	총 자동차판매	8월		2.790M
9월1일	23:00	미국	건설지출 MM	7월	-0.1%	-1.1%
9월1일	23:00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8월	52.6	52.8
9월2일	18:00	유로존	생산자물가 MM	7월		1.1%
9월2일	21: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8월	290k	528k
9월2일	21:30	미국	실업률	8월	3.5%	3.5%
9월2일	23: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7월		0.0%
9월2일	23:00	미국	공장주문 MM	7월		2.0%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8월29일(일)

- ⊙ 라엘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이사, 시카고 연방은행 주최 '페드나우 얼리어답터 워크숍' 행사 연설 (30일 오전 3시15분)
- ⊙ 휴장국가: 영국

8월30일(화)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헌팅턴 지역 상공회의소 연설 (오후 9시)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월스트리트저널 Q&A 행사 참석 (자정)

8월31일(수)

- ⊙ 로리 로건 델러스 연방은행 신임 총재 소개 행사 (1일 오전 7시)
- ⊙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 기자회견 (오후 6시)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데이턴 상공회의소 연설 (오후 9시)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조지아핀테크아카데미 연설 (1일 오전 7시30분)

9월1일(목)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조지아텍 경영대학원 연설 (2일 오전 4시30분)

▶ 금주 세계 5대 이슈

⊙ 미국 월간 고용보고서

오는 9월2일 공개될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견실한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해도 경제 연착륙을 이뤄낼 수 있을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다.

경기침체 전망을 부정하는 이들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견실한 노동시장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었다.

7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2월 이후 최대인 52만8,000명 증가했는데, 로이터 데이터에 따르면 8월 추정치는 절반 수준인 29만명으로 나타났다.

⊙ 유로존 인플레이션 쇼크

31일 발표되는 8월 소비자물가지수 잠정치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불편할 정도로 높은 상태임을 보여줄 전망이다. 이는 경기침체 리스크 증가에도 유럽중앙은행(ECB)에 다음 달 금리 추가 인상 압력을 높일 것이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곧 정점에 다다리리라고 예상됐던 인플레이션율은 조만간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7월 인플레이션율은 전년 대비 기준 8.9%로 ECB의 목표 2%를 훨씬 웃돌았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초래한 새로운 재료는 러시아가 대유럽 가스 공급 추가 감축을 시사하면서 나타난 가스 가격 급등이다. 가스 가격은 8월에만 45%, 올해 들어서는 300%가 폭등했다.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언제 정점에 다다를지는 가스 가격 추이에 달려 있다.

⊙ 중국 제조업 부진 우려

이번 주 중국에서는 제조업 지표가 발표된다.

8월 공식 구매관리자지수(PMI)가 31일 발표되는데, 7월 제조업 PMI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제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수축한 바 있다.

1일 발표되는 차이신 PMI 역시 수축 국면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 및 기업 심리는 부동산 위기로 계속 타격을 입고 있고, 폭염으로 인한 생산 차질도 빚어지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이 지난주 대출우대금리를 인하하는 등 당국은 경기 부양에 애쓰고 있다. 중국 정부는 25일 노동시장 안정 조치를 약속해 주식시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 유로, 다시 1달러 아래로

유로 가치가 다시 1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유로 가치가 20년 만의 최저치로 하락한 것은 에너지 위기 등 유로존이 직면한 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러시아산에 의존도가 높은 유로존의 겨울철 수요 급증을 앞두고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경제가 침체를 향하고 있음에도 ECB가 금리를 더 빠르게 인상하리라는 전망도 강화됐다.

유로/달러와 가스 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강해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수출량을 계속 줄이면서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유로의 추가 약세를 예상하고 있다.

⊙ 역사상 가장 부진한 달을 맞이하는 주식시장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에 가장 위험한 달인 9월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의 반등세가 주춤하고 있다.

주식 트레이더 연감에 따르면 1950년 이후 S&P500지수는 9월에 평균 0.5% 하락해 최악의 월간 성적을 보였다. 평균 상승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열두 달 중 두 달에 불과하다. 펀드 매니저들은 3분기 말에 다가오면서 수익을 못 내는 포지션을 매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올해 9월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9월20-21일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며, 그에 앞서 발표될 소비자물가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는지 여부를 보여 주게 될 것인데, 수치가 어떻게 변동성을 초래하리라 예상된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종합) 이창용 총재 “연준보다 먼저 긴축 종료 어렵다... 환시 예의주시”

8월28일 (로이터) 하워드 슈나이더·앤 사피르·신시아 김 기자 -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지만, 연준보다 일찍 인상 기조를 끝낼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이창용 총재가 로이터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혔다.

잭슨 홀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 총재는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연준 정책이 달러/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점과 인플레이션이 아직 정점을 통과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시작했으니 먼저 인상 기조를 끝낼 수 있냐고 물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난 뒤 유가 상승이 재개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정부나 외부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연준 정책으로부터도 독립된 상황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당장 연준 정책이 달러/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배경으로 꼽았다.

최근 달러/원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 이 총재는 "며칠간 환율 움직임이 과도했던 적이 있다"라면서도 "대체로 달러/원 환율 움직임은 주요 통화들과 마찬가지로"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달러/원 환율 상승 폭이 다소 커졌다면서 "현재 중국과 일본 등 두 나라 중앙은행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모두 이웃 나라들인 데다가 공교롭게도 모두 우리와 경쟁 관계다"라고 설명했다.

▲환시 예의주시... 투기요인시 개입 필요

이 총재는 "중국과 일본 통화가 절하돼 우리에게도 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면서 "현재로서는 달러/원 환율 움직임은 대체로 유로나 다른 주요 통화와 마찬가지로 추세"라고 말했다.

환율 상황과 관련해 이 총재는 원화 절하가 인플레이션에 상방 압력을 가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율이 투기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투기적 요인이 있으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원화 절하 압력이 유동성이나 지급 능력, 혹은 신용도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번에는 2008년이나 1997년과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원화 절하에 따른 수출 영향에 대해 이 총재는 이론적으로는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국 주요 수출기업들은 현재 세계화됐고 구조적 변화도 있어서 원화 절하의 수출 영향은 훨씬 더 낮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이후 정책과 관련해서 이 총재는 현재 전망은 인플레이션율이 연초 5%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 연말까지 3% 내외로 낮아진다는 것인데, 전망보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면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정점론과 관련해 이 총재는 "파월 (연준) 의장도 말했듯이 인플레이션 추이가 반환점을 돌았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그런 전환에 관한 아주 강력한 증거가 없으면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번역 유춘식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칼럼) 연준에게 달러 급등의 의미는?

올랜도, 플로리다, 8월25일 (로이터) -

달러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급등하면서 근 40년 만의 연간 최고 상승률을 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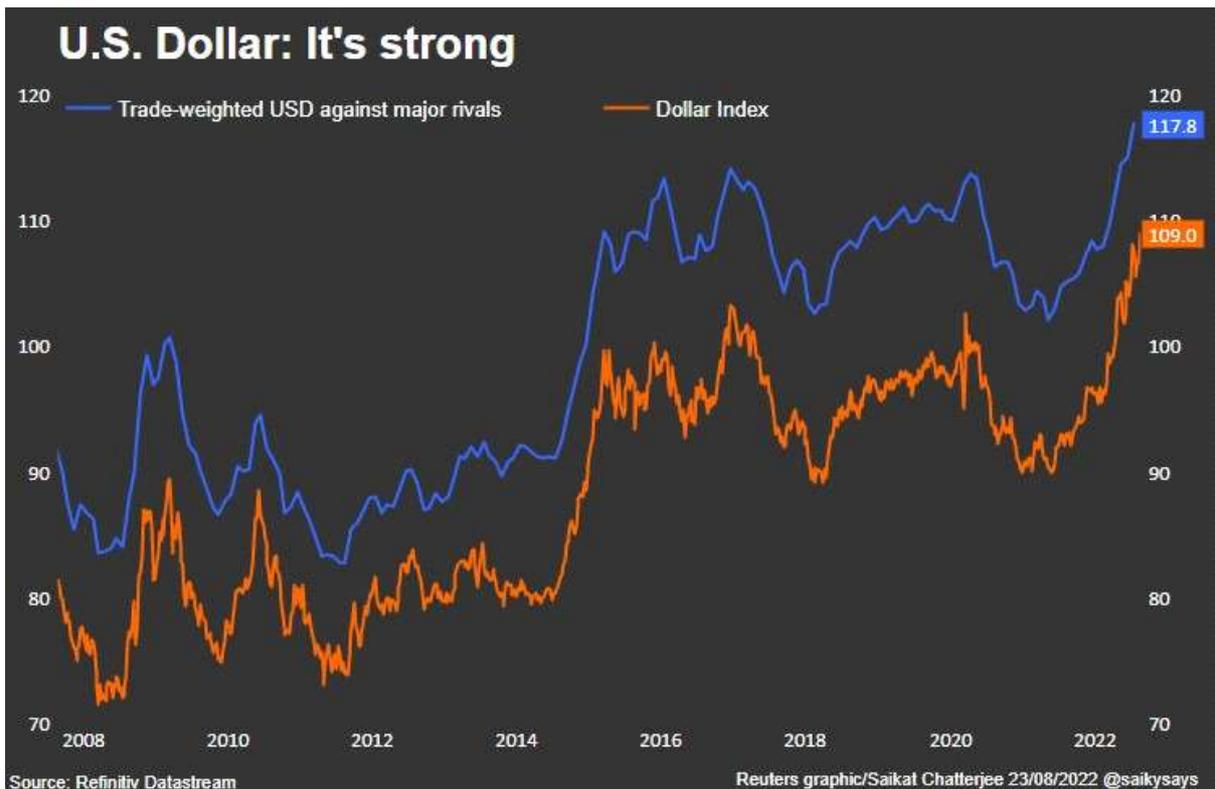
그렇다면 연방준비제도는 달러 강세를 우려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달러 강세는 수입 비용을 낮춰 물가 압력 진정과 금융 여건 긴축에 도움이 된다. 두 가지 모두 40년 만의 최고 수준인 물가상승률을 2% 목표로 되돌리려는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관계자들이 바라는 바다.

연준의 7월26-27일 회의록에 따르면 정책결정권자들은 달러 강세의 수입 물가 억제를 인플레이 억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팬데믹 이후 달러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지만, 연준에게는 달러가 절상되는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나은 것이다.

브래드 벤티텔 제프리스 글로벌 FX 헤드는 "(달러 절상을) 중단시켜서 좋을게 없다. 달러 절상은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연준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달러지수는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20년 만의 최고치 부근을 가리키고 있다. 올 들어 13.5% 상승해 1984년 이후 최고 연간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1971년 금본위제 폐지 이후로는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 된다.

달러지수는 전년동기 대비로는 17% 가량 상승했는데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플레이션 완화 압력이며, 금리 격차 때문에 앞으로 더 심화되리라고 많은 이들은 보고 있다.



연준은 일본이나 중국의 중앙은행과 달리 금리를 더 인상할 계획이다. 중국인민은행은 현재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게다가 시장은 올 겨울 에너지 위기에 봉착한 영국 및 유로존 국가들보다 미국 경제가 훨씬 나은 모습을 보이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경기침체시 미국 국채에 대한 해외의 안전자산 수요가 자연스럽게 달러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이다.

◆ 달러 강세와 인플레이션

제프리스의 베치텔에 따르면 경험상 달러의 전반적인 가치가 10% 절상되는 것은 금리 약 75bp 인상에 상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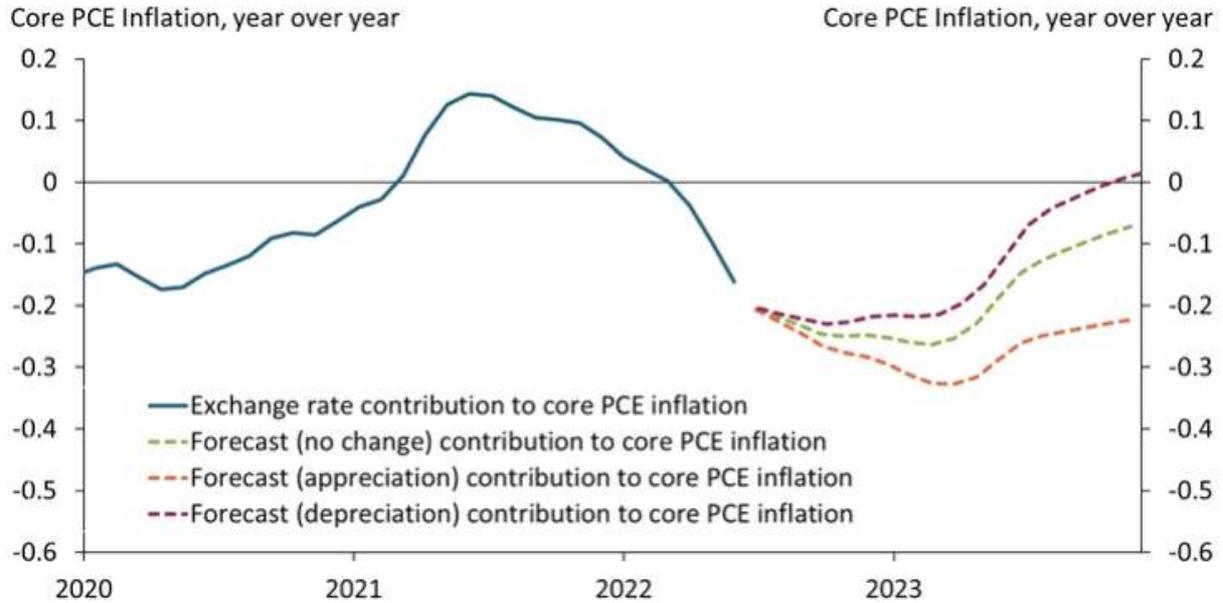
소시에테제네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달러 10% 절상이 1년간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5%p 낮추는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17일 공개된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달러 강세가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지난해 5월 이후 달러의 8.5% 절상이 연간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약 0.2%p 낮춘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말까지 5% 더 절상되면 물가상승률 하락 효과는 0.33%p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당히 완만한 수치다.

보고서는 "국내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완화 효과를 주려면 훨씬 더 큰 폭의 절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Chart 3: A sizable impact of the exchange rate on core PCE inflation is unlikely in 2022/2023



Sources: BLS,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Pacific Exchange Rate Service, and authors' calculations.

보고서는 팬데믹에 따른 미국의 수입 수요 왜곡 및 공급 차질로 인해 현재 강달러의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지난 수 년간에 비해 훨씬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준 관계자들이 이같은 시각을 공유한다면 현재의 환율을 매우 편안하게 생각하고, 달러가 더 절상되더라도 우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절상 속도가 너무 빨라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연준은 아마 달러의 추가 절상을 꺼리지 않으리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다이나믹 이코노믹 스트래티지 창립자이자 이코노미스트인 존 실비아는 "달러 강세는 연준 정책이 가져온 부수적인 이익이며, 연준에 간접적인 이익"이라고 말했다.

달러의 최근 강세가 금융시장에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들이 있다. 골드만삭스의 미국 금융여건지수 (FCI)는 지난주 99.30으로 25.5bp 올랐는데, 그 가운데 단일 요인으로는 달러가 10.2bp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6월 이후 주식시장 반등 등에 따라 FCI에 반영된 금융 여건 완화를 3분의 1 가량 상쇄했다.

연준에게는 틀림없이 더 듣고 싶은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8월26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331.3	-0.4%	-10.7%	-8.6%	유로	0.9963	-0.7%	-12.4%	-6.9%
100엔 대비	975.9	-0.1%	5.8%	+1.8%	엔	137.54	-0.4%	-16.3%	-10.3%
유로 대비	1,337.2	0.2%	1.1%	-1.9%	위안	6.8715	-0.8%	-7.5%	+2.7%
위안 대비	195.32	0.3%	-4.2%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2,283.40	-4.2%	-11.2%	+18.7%
코스피	2,481.03	-0.5%	-16.7%	+3.6%	나스닥	12,141.71	-4.4%	-22.4%	+21.4%
코스닥	802.45	-1.4%	-22.4%	+6.8%	S&P500	4,057.66	-4.0%	-14.9%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25.22	0.3%	-16.6%	-4.9%
국고채 3Y	3.525%	32.8bp	172.7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3.615%	33.9bp	160.4bp	+67.6bp	미국채 2Y	3.380%	14.0bp	265.0bp	+61.0bp
국고채10Y	3.616%	30.6bp	136.6bp	+53.7bp	미국채 10Y	3.030%	6.0bp	152.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92.97	3.4%	23.2%	+55.8%	한국 5Y	33.0bp	-2.6bp	10.9bp	-0.7bp
금(현물)	1,737.86	-0.6%	-5.0%	-3.6%	일본 5Y	22.3bp	0.0bp	4.6bp	+2.1bp
TR상품지수	3,549.65	1.3%	6.3%	+24.6%	중국 5Y	67.3bp	-5.5bp	26.1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